

원주민 인권과 종족성의 정치: 볼리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김기현(선문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 I. 서론
- II. 원주민 정체성의 회복: 카타리스타 운동과 CIDOB
- III. MNR과 카타리스타 연합정부의 다문화주의
- IV. 종족성 정치의 강화
- V. 결론

I. 서론

앞선 논문에서 필자는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인권이란 무엇을 말하
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김기현 2005) 과거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은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근대화를
통한 국가적 통합이 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원주민들은 자신
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받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를 주장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토지의 자유주의적 개인소유권보다는 전통
적인 집합적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정당을 통한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M3062).

** Ki-Hyun Kim(Sunmoon University, Department of Spanish Language and Latinamerican Studies, drkhkim@sunmoon.ac.kr), "The Human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the Politics of Ethnicity in Bolivia".

중앙정치에서의 대표성 확보를 넘어 자신들 지역에 있어서의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보편적 인권을 넘어 고유의 관습법을 유지하고자 하며, 학교에서도 스페인어 교육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원주민 고유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가르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종족성은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강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인권운동은 이 지역에 존재했으나 묻혀 왔던 인종 문제의 분출 즉 “인종정치(ethnic politics)”의 부상이라는 문제를 정치 지평에 새로이 떠오르게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치적으로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정치에서는 과거의 주요 행위자였던 군부나 노조는 뒤로 물러나고 여성이나 원주민이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로 인한 전통적 조합주의가 소멸됨에 따라 원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으면서, 또 원주민 운동에 보다 관용적인 민주화 과정이 이들 운동에 보다 많은 활동 공간을 제공하면서, 또 국제적 NGO들의 물질적 기술적 지원이 원주민 운동에 힘을 보태면서 원주민 운동은 최근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주민 운동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의 전반적인 전망을 위해 이제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 21세기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에서 원주민의 인권 운동과 정치적 참여는 정치경제변동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특히 원주민 인권 운동과 종족성의 정치라는 주제를 위해 볼리비아를 주목하는 것은 이 나라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분리된 국가이고 또 이 나라에서 최근 원주민 운동이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볼리비아 인구에서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로서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이들 중 케추아인이 약 35%로 가장 많고 아이마라인은 약 25% 정도

를 차지한다. 그 외에 동부 아마존 저지대 지역에는 과라니족을 비롯하여 40개 정도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토착문화를 유지하고 원주민어를 사용하며 인구 2천명 이하의 작은 농촌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물론 원주민들의 도시 진출로 인해 도시 인구의 약 절반이 태생어가 원주민어인 원주민들이다.

볼리비아의 이러한 극단적인 인종적 다양성은 공동의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종족성과 경제적 기회가 연결됨으로써 다수의 농촌 극빈층과 도시 빈민층을 양산하는 인종에 기반을 둔 계급 구조가 공고화 되었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원주민 운동은 1980년대부터 볼리비아 정치에 주요 변수로 부상했으며 2000년부터는 선거와 시위라는 양면의 전략을 통해 정치의 장에 핵심이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볼리비아 사례를 통해 원주민운동이 전개되어 온 양상과 최근 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인권운동과 종족성 정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II. 원주민 정체성의 회복: 카타리스타 운동과 CIDOB

II.1. 농민(Campesino)으로서의 원주민

스페인의 정복 이래 1952년 볼리비아 혁명이 발생하기까지 볼리비아 사회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시민”과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디오”로 완전히 양분된 이중사회였다. 그때까지 인디오들은 “우리들의 야만인(nuestros bárbaros)”으로서 문명화되거나 동화되거나 아니면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52년 볼리비아 혁명 이후 정치적 권리를 가지지 못했던 원주민들은 선거권¹⁾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볼리비아 정치의

한 행위자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처음 원주민들은 국가가 후원하는 농민조합 하에서 조직화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당시 이들의 정체성은 원주민이기 전에 “농민(campesino)”으로 규정되었으며, 원주민 단체의 대부분은 집권 민족주의혁명운동당(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이하 MNR)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원주민이 아닌 농민으로서의 통합은 비단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국가와 원주민의 일반적 관계로서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종족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인종차별주의로 생각됨에 따라 원주민 정체성은 계급적 성격의 농민이 되어야 했으며 또한 근대화와 함께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물론 미약한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에서는 종족성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의 기초로 남아있기도 했다. 쿠시안키와 엑스틴(Rivera Cusicanqui 1987; Eckstein 2001)의 분석에 따르면 특히 볼리비아에서는 케추아인들과 아이마라인들의 반응이 조금 달랐는데 그 이유는 후자가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로부터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농민조합 운동은 안데스 고지대의 다양한 지역에서 각기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케추아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코차밤바 지역에서 농민조합모델은 이미 설립되어 있던 그들의 소규모 토지 소유 모델과 잘 맞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원주민 농민조합은 일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고, 영농자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국가의 지원을 상대적으로 보다 쉽게 받을 수도 있었다. 반면 아이마라 원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라파스지역에서는 여전히 집합적 토지소유제와 전통적인 사회조직 형태가 강력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조합 모델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소외감 이후에 자신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받을 것을 요구하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정치문화운동인 카타리스타 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1) 원주민의 선거권은 1960년대 군부정권이 혁명에 기초를 둔 선거연합인 민족혁명운동(MNR)을 몰아낸 이후 1980년대 민주화가 될 때까지 다시 철회되었다.

II.2. 카타리스타 운동의 전개

볼리비아에서 원주민 운동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군부정권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군부정권은 노동자와 중산층의 투쟁적 민주세력과 맞서 민간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부와 농민의 협약(Pacto Militar Campesino, 이하 PMC)”을 시도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농민들에 대해 자행되는 군부의 억압과 대량학살은 원주민들의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1974년 코차밤바 계곡에서 케추아인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반세르(Hugo Bánzer)장군 정권에 의해 원주민의 대량학살이 자행되었을 때 이에 저항한 것은 오히려 희생자가 전혀 없었던 다른 지역의 아이마라인들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으로 국가와 군부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지닌 케추아인들에 비해 아이마라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PMC에 반대하고 국가에 대해 저항하는 급진적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1981년 가르시아 메사(Luis García Meza)장군 정부 하에서 PMC가 최종적으로 붕괴되었을 때 협약의 붕괴를 이끈 주축은 아이마라 원주민들의 카타리스타(Katarista)운동이었다. 카타리스타 운동은 1960년대 후반 아이마라인이 주로 거주하는 라파스와 오루로지역에서 출현한 원주민들의 운동으로 그의 이름은 1781년 실패로 끝난 원주민 반란 시 아이마라의 영웅이었던 투파 카타리(Tupaj Katari)에서 따온 것이다. 처음 원주민의 문화운동으로 시작했던 카타리스타 운동은 노조단체인 볼리비아 농업노동자 유일 노조동맹(Confederación Sindical Unica de Trabajadores Campesinos de Bolivia, 이하 CSUTCB)의 일원으로 발전했다가 1978년부터는 보다 독자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볼리비아 원주민 운동의 주도권은 MNR과의 연합을 주도하고 PMC를 지지한 코차밤바 중심의 케추아인들로부터 보다 급진적인 아이마라인들로 넘어오게 되었다.

카타리스타 운동가들은 점차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원주민들을 이용만 하려는 노동자조직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

를 거치면서 볼리비아 원주민 운동에는 MNR주의자로부터 카타리스타로의 종족적 정체성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공동체에 뿌리를 두지 않고, 도시의 사상적 스승을 모시며,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좌파 농민 운동과는 달리 카타리스타의 아이마라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종족적 상징을 사용하며, 토착적 권위를 존중하고, 원주민의 의복을 입는 등 원주민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게다가 1978년부터 시작된 민주화 과정에서는 카타리스타 운동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생겨났고 이때부터 정치적 장애 있어도 원주민들의 주체적인 행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실제 비록 좌파와의 동맹을 통해서 이긴 하지만 원주민들은 최초로 원주민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를 지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원주민 운동, 나아가 농민 운동의 주도적 세력으로서 혹은 정치 세력으로서 카타리스타 운동의 헤게모니는 오히려 점차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5년에는 내부 분열까지 일어났다. 그 후 2000년까지 원주민 운동에서는 어떤 그룹도 원주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나 카타리스타 운동에 의한 종족성의 부활은 이후에도 다양한 정치세력들에 의해 반영되었다.

II.3. 아마존 저지대 원주민 운동(CIDOB)의 탄생

한편 1980년대 초반에는 볼리비아의 동부(Oriente)와 아마존 지역에서 첫 번째 원주민 조직이 탄생했다. 이들 지역의 원주민들은 몰려드는 새로운 이주 세력과 여러 가지 문제로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증가했다. 그런 상황에서 80년대 들어 국제 NGO와 교회 등이 이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²⁾ 따라서 원주민들의 국제

2) 동부 저지대 지역 원주민운동의 설립회원들은 대부분 국내 혹은 국제 NGO들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선교사들은 아마존 지역의 일부 작은 원주민 마을들에서 여전히 후원자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관계는 볼리비아 국가 정치시스템의 국제적 의존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로 인해 원주민 운동의 진정성과 자발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적 네트워크도 크게 향상되었다. 1970년대 원주민들은 가톨릭교회나 부유한 세계 자선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세계화로 인해 더 많은 국제적 단체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의 169호 협정은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회원국들에게 원주민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고유한 제도나 관습을 존중하고, 의료나 교육 등의 복지를 제공할 것을 언명하였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관심은 원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였고 그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다른 지역에서 원주민들의 조직화가 시작되자 볼리비아 저지대 원주민들도 드디어 1982년 볼리비아 동부, 차코, 아마존 지역 원주민 동맹(Confederación Indígenas del Oriente, Chaco y Amazonía de Bolivia, 이하 CIDOB)이라 불리는 자신들의 조직을 설립했다. 다양한 종족 간의 적대감이 조직화의 장애물이었으나 새로운 이주자로부터 자신의 땅을 지켜내야 한다는 공동의 절박감이 이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했다.

CIDOB은 1991년 동부 저지대에서 안데스 고지대의 수도 라파스까지 40일간의 “토지와 존엄성을 위한 행진(March for Territory and Dignity)”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널리 알렸다. 이 행진에는 안데스 고지대의 원주민들도 합류했는데 그로 인해 CIDOB의 종족적 정체성에 대한 주장이 아이마라 원주민 운동과 상징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 교감하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로 인해 안데스 지역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도 노조나 계급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공동체 기반의 종족적 문화적 이슈로의 전환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계급적으로 농민으로 분류되었던 원주민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오리지널 민족들(pueblos originarios 혹은 naciones originarias)”³⁾로 규정했으며, 아이마라의 종족적 상징이었

3) 안데스 원주민과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오랜 토론 끝에 자신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오리지널 민족들”을 채택했는데 “원주민(indigenas)” 대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멕시코나 과테말라 지역의 원주민들과는 달리 안데스 지역의 케추아인들이나 아이마라인들이 원주민이라는 용어를 경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던 무지개색 바둑판무늬의 “위플라(wiphala)”기는 이제 “오리지널 민족들”의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나타내는 명백한 상징물이 되었다. 원주민들이 주가 되어 만든 조직 중 가장 잘 조직된 단체 중 하나인 코카생산업자들 단체 또한 코카가 갖는 안데스 원주민들 사이에서의 신성한 의미를 살려 조직의 성격을 보다 문화적 종족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가기 시작했다.

II.4. “출로 포플리즘”

그러나 이때까지도 선거에 있어서 원주민 운동은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자금부족, 약한 조직, 내부분열, 지역적 성격 등의 문제점 때문에 어떤 카타리스타 정당도 선거에서 많은 표를 획득하지 못했다. 90년대까지 카타리스타 운동은 의회에서 오직 한 석을 얻는데 그쳤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한 선거에서 그들의 존재를 알렸고 그들의 다문화주의 호소는 원주민이 다수인 볼리비아 국민들의 의식 속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1978년부터 아이마라 카타리스타 리더를 맡고 있는 우고 카르테나스(Victor Hugo Cárdenas)는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에 의원직을 수행했으며 1989년에는 비록 낙선했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선거 캠페인 동안 많지 않은 텔레비전 출연 등 대중 앞에 설 기회를 통해 지적이고도 강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주민 운동에 대한 대중적 시각을 교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원주민 정체성의 부각과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는 1980년대 후반 “출로(cholo)⁴⁾ 포플리즘”이라는 현상을 야기한다. 오랜 기

이다. 이들은 원주민이라는 용어보다는 여전히 “농민”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그룹인 케추아인 혹은 아이마라인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혹은 가장 투쟁적 경우에 오히려 “인디오(indio)”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원시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종족(etnia)이라는 표현도 좋아하지 않는다. (Albó 1994) 반면 CIDOB의 지도부는 운동의 자치성을 확보하고 원주민 운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지원그룹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원주민”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선호한다. “오리지널 국민들”이라는 용어는 양자의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간 원주민 토속문화학자이자 아이마라인 지역에서 인기 있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의 소유주이기도한 카를로스 팔렌케(Carlos Palenque)는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있었던 세 번의 선거에서 수도인 라파스와 그의 위성도시인 엘알토에서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그의 정당인 조국의 양심(Conciencia de Patria, 이하 CONDEPA)은 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당연히 그의 선거전에 있어서 종족성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그는 “새로운 인디오와 출로의 볼리비아” 건설을 주장했고 아이마라의 상징물들을 자신의 정당의 상징물로 사용하면서 원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했다.

한편 1989년 혁명좌파운동(Movimiento Izquierdista Revolucionario, 이하 MIR)과 전 독재자 우고 반세르가 이끄는 우파 정당인 민족주의민주행동당(Acción Democrática Nacionalista, 이하 ADN)의 선거연합을 통해 탄생한 하이메 파스 사모라(Jaime Paz Zamora) 정부 또한 원주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 그는 원주민 문제를 국제적 포럼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었으며 국제 원주민 기금(FIP)의 본부를 볼리비아에 유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코카 잎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했고, 정부의 원주민 기구를 강화했으며, 원주민의 이중문화교육을 지원했고, 원주민 운동과의 직접적 대화를 시도했고, ILO의 원주민 인권에 대한 169조항을 인정했다. 심지어 비록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마라의 깃발인 위팔라(wiphala)를 국가적 상징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은 볼리비아 정치에 있어 이제 더 이상 원주민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통치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원주민들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4) 출로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원주민적 뿌리가 강한 인종적 문화적 혼혈인들을 지칭한다. 경멸적 의미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학적으로 중립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된다.

III. MNR과 카타리스타 연합정부의 다문화주의

III.1. 다문화주의의 전개

1993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혁명 이전에 대지주였던 MNR의 산체스 데 로사다(Gonzalo Sánchez de Lozada)가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카타리스타 운동의 리더인 우고 카르테나스⁵⁾를 지명하기에 이르렀다. MNR과 카타리스타의 관계는 합병이나 흡수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선거연합이었다. 카르테나스와의 연합으로 MNR은 지금까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아이마라주 거주지역인 라파스에서 다수를 획득할 수 있었고 또 그에 힘입어 37.6%를 득표함으로써 2위를 한 ADN과 MIR의 공동후보인 반세르를 약 14% 차이로 따돌렸다. 2위와의 이런 차이는 1982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선거 중 가장 큰 것이었다.(Van Cott 2000, 341)

자신들의 토지를 유지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80년대부터 시작된 원주민들의 조직화와 대대적인 시위의 결과가 90년대 중반에는 MNR과의 정치적 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MNR은 원주민운동과의 그러한 연합을 통해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⁶⁾ 이에 우고 카르테나스는 부통령 취임연설에서 다문

5) 그는 대통령인 산체스 데 로사다가 한때 미국으로 일주일 여행을 하는 동안 임시 대통령이 된 적이 있다.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컸다. 이 일로 인해 카르테나스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생물학적 문화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누린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볼 때 19세기 중반 멕시코의 사포텍 원주민 출신인 베니토 후아레스가 대통령이 된 적이 있지만 그가 문화적으로 거의 백인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카르테나스가 실제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진정한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의 영예는 2005년 볼리비아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보 모랄레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카르테나스는 정식으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임시 대통령으로서 임기도 극히 짧았기 때문에 그를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물론 페루에서도 출로 출신의 알레한드로 톨레도가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그 또한 후아레스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원주민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원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정식으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 에보 모랄레스야말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진정한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6) 다당제이면서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가 없는 볼리비아에서 37.6% 득표는 결코 적은

화적 다종족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볼리비아가 500년간의 소외와 배제의 역사에서 다시 깨어나는 빠차꾸띠(Pachakuti: 아이마라어로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Albó 1994, 68, 재인용)

원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연합정부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이 문제를 다룰 정부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정부는 종족, 성, 세대 문제를 다루는 부(SNAEGG)를 새로 만들고 산하에 특별히 카르데나스의 카타리스타 운동과 함께 운영할 종족 문제를 위한 국(Sub-secretaria de Asuntos Etnicos, 이하 SAE)을 두었다. 그리고 SAE는 1994년 CIDOB과 앞으로 SAE의 프로젝트나 입법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을 맺게 된다. 이를 통해 과거에 단순히 정부 정책의 수혜자에 불과했던 원주민들이 이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 정치행위자로 부각되게 되었다.

원주민들의 이러한 참여를 바탕으로 연합정부는 볼리비아 원주민들의 지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과 아이마라 원주민 우고 카르데나스 정부(1993-97) 하에서 볼리비아는 처음으로 그들의 사회가 “다종족(multi-ethnic), 다문화적(pluri-cultural)”임을 헌법상 인정한다. 그리고 국가와 원주민 사이의 전통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다문화적 개혁을 제도화한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헌법 제 1조에는 볼리비아가 “다종족 다문화” 민족임이 명백히 언급되었고, 171조에서는 볼리비아의 “영토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의 인정은 구체적 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주었다. 그 중에서 이중 언어와 문화 교육프로그램과 원주민의 집합적 토지소유권 인정은 가장 두드러지는 예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원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민중 참여법”(Law of Popular Participation)이다. 이 법은 시 단위의 지방자치정부의 행정에 민중대표로서 원주

것이 아니다. 특히 2위와의 표차가 14%나 났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민이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원주민 대표로는 기존의 원주민 마을의 관습적 리더들의 대표성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이로써 볼리비아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정치 차원에서 원주민들의 사회조직과 그들의 관습적 지도자들에게 합법적인 정치적 권력이 주어진 것이다.

볼리비아에서 이와 같이 사회의 다종족 다문화적 성격이 헌법으로 인정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1991년에 헌법상 종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한다고 밝혔지만 그 나라의 1.8% 밖에 되지 않는 원주민 인구의 비중을 감안할 때 국가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실제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원주민 인구 비중이 60%를 넘는 볼리비아와 같은 나라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헌법적 인정은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라에서 실현되기는 오히려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문화적 다양성의 헌법적 인정이라는 사실은 자칫 국가 체제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원주민 인구가 소수인 미국이나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같은 나라에서는 원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헌법적 인정이 국가의 통합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원주민 인구가 많거나 다수인 멕시코,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헌법적 인정이 국가의 통합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볼리비아에서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인정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Ⅲ.2. 다문화주의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이 다문화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선거연합에 대한 단순한 호의 차원이 아니라 원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치성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이미 원주민운동의 세력이 강하게 성장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연합정부의 다문화주의는 대통령이 원주민에게 주는 하나의

포퓰리즘적 선물이 아닌 원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포스테로(Postero 2004, 191-193)는 MNR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정치적 자치를 추구하는 원주민 세력과 그에 대해 새로운 지배와 포용의 수단을 찾는 통치엘리트 집단의 “위급상태에서의 접합”이라고 정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NR에 의한 다문화주의는 비록 과거의 하향식 통합정책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국가가 주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한계는 MNR과 원주민 세력의 연합이 본질적으로 결코 양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연합정부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제 이들은 임기 중 석유, 가스, 통신, 항공사, 발전, 철도 등에 걸쳐 볼리비아의 가장 중요한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작업을 추진했다.⁷⁾ 경제사회적으로도 산체스 데 로사다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원주민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민중 참여법” 또한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른 볼리비아식 탈중앙집권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측면이 크다.

연합정부의 다문화주의 또한 본질적 측면을 잘 들여다보면 서구적 근대성과 원주민성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전통에 대한 자의식이 애매 모호하게 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주민성을 근대성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종족성을 관광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 원주민들이 만든 수공예품, 원주민 음악, 원주민 카니발 등은 실제 관광산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국가는 원주민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외국 관광객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고 나아가 심지어 원주민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국제적 지원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을 해 스페인어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는 대통령인 산체스 데 로사다 정부 하에서 다문화주의

7) 볼리비아의 민영화 작업은 “자본화”(capitalization)라고 불리는 데 그 특징은 국영기업을 민간자본에게 전부 팔기보다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에게 지분의 50%를 팔고, 남은 지분 50%는 국가연금기금에 49% 그리고 전 국영기업의 직원들에게 1%씩 나누어 주는 것이다.

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원주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그와 함께 다문화주의가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 동반 실현을 추구한다는 데 있어 산체스 데 로사다 정부의 다문화주의의 한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연합정부의 다문화주의 개혁이라는 것이 볼리비아의 지배계층과 원주민 그룹 사이의 역사적 모순을 지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간(間)문화주의(Neoliberal interculturalism)⁸⁾는 예전에 소외되었던 인디오들을 포용하기 위한 일관된 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차이, 시민적 정체성, 계급적 참여 형태의 질서를 재구성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수시로 바뀌는 심지어 때때로 모순적이기도 한 정치적 언어와 제도의 변화 형태에 불과하다.”는 쿠스탐선(Gustafson 2002, 269-270)의 평가도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시작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결과적으로 MNR과 원주민의 연합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치적 승리와 안정이 필요했던 지배계층이 원주민 그룹에게 제한적 양보를 한 조건부 동맹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⁹⁾

따라서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의 원주민에 대한 포용정책은 카타리스타 운동¹⁰⁾의 온건화와 분열을 동시에 가져왔다. MNR과의 연합의 한계를 점차 인식한 급진적 카타리스타 운동가들은 대부분 우고 카르데나스의 MNR과의 연합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하

8)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인종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간(間)문화성(Interculturality)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된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다문화주의이다.

9) 원주민 운동과 MNR의 동맹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원주민 운동과 산체스 데 로사다 정부의 신자유주의와의 어색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중 하비에르 알보(Albó 1994)는 “카타리스타로부터 다시 MNR주의자로의 전환: 아이마라와 신자유주의의 놀라운 동맹”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스탐선(Gustafson 2002)은 “자유주의적 인디헤니스모(Liberal Indigenismo)”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10) 이때까지도 카타리스타 운동은 여전히 카르데나스라는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한 체 체계적 대안을 가진 조직화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여 우고 카르테나스는 아마존 저 지대 원주민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돌파구를 찾게 된다.

IV. 종족성 정치의 강화

IV.1. 원주민 운동의 부활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

1997년에는 과거 군부 독재자였고 현재는 오리엔트 지역의 백인 지배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인 ADN을 대표하는 우고 수아레스 반세르(Hugo Suárez Banzer) 정부가 탄생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원주민들의 실망으로 인해 그들의 지지를 상실한 MNR의 득표가 18.2%에 머물렀던 데 비해 20%를 득표한 ADN이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반세르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과거 “출로 포폴리즘”을 주도한 시민연대연합(Unión Cívica Solidaridad, 이하 UCS)과 CONDEPA 그리고 MIR를 끌어들이는 대연합정부를 출범시킨다. 보수적인 반세르 정부마저 이들과 연합했다는 사실은 이제 어떤 정부라도 어떤 형태든 원주민의 문제를 정치 아젠다로 삼지 않고는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세르 정부는 산체스 데 로사다 정부 때 시작된 원주민 관련 개혁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나 담론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비즈니스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원주민 문제를 문화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다문화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원주민을 하나의 빈곤층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국제시장에서 볼리비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근대화된 노동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세르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다.

오히려 산체스 데 로사다 정부에서 시작된 토지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원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

주계급이 여전히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토지 개혁은 정부 관료들에 의해 방해받는 사례가 많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주도 원주민도 아닌 제삼자(도시로부터 온 이주민)들의 개입으로 인해 실제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토지는 많지 않았다. 심지어 토지의 집합적 소유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개인 소유권을 허용해주는 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집합적 토지 소유권이라는 다문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한편 “민중참여법”을 통한 지방 수준에 있어서의 원주민의 정치적 참여도 실질적 효과는 미약했다. 지역자치의 강화로 원주민 인구가 많고 강력한 지역적 리더가 있는 곳에서는 원주민이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이미 존재하던 지역 정치엘리트가 자치권의 강화를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데 활용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틀 내에서 참여의 장을 제공하고자 했던 이 법은 기본적 권력구도, 인종차별주의, 전통적 정당 등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 한 원주민들의 실질적 정치 참여가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증명해주었다.

“민중참여법”을 통해 정치적 참여와 정책의 본질적 변화를 기대했던 원주민들에게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은 크나큰 실망감을 가져다주었다. 그들은 이제 부유한 지배층에 기대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Postero 2004, 202-204)

2000년부터 원주민들의 이러한 실망은 대다수 민중세력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합쳐져 볼리비아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시위의 물고름 튼 것은 소위 “물 전쟁”이었다. 정부가 물세를 올리려고 하자 코차밤바주에서 처음으로 파업과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파업과 시위는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 이후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농민 노동자, 교사, 운수업자, 코카재배업자 등은 라파스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농민연합의 격렬한 시위는 경

찰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격렬한 파업과 시위는 가톨릭교회의 중재로 해결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볼리비아의 기존 정치 시스템과 전통적 정당들이 이제 더 이상 원주민을 위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정치적 참여를 확대할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기존의 시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원주민들에 의한 폭력과 시위가 심화되자 라파스의 보수 언론들은 볼리비아 사회를 도시화되고 근대화되고 스페인어를 말하는 볼리비아와 반체제적이고 반근대적이며 폭력적인 다른 인종의 볼리비아로 양분하는 구시대적인 “두 개의 볼리비아”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러한 시각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간문화주의”를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백인과 메스티소들의 원주민들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식민지 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원주민은 이제 더 이상 식민지 시대의 원주민이 아니었다. 이미 정치적 주도성을 회복한 원주민의 저항은 격렬해졌고, 시위대가 군부와 충돌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바야흐로 볼리비아는 인종전쟁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인종문제로 야기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IV.2. 종족성 정치의 출현: MAS, MIP, CIDOB

이런 상황에서 원주민 운동은 정치적으로 세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그를 주도하는 세력은 저지대 산타크루스 지역의 CIDOB와 라파스와 인근 지역의 아이마라인들 그리고 코차밤바 인근 차파레 지역의 코카 재배업자이다. 이 중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와 펠리페 키스페(Felipe Quispe)가 이끄는 운동은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사회적 갈등의 시기에 있어 코카재배업자들의 투쟁은 특히 두드러졌다. 과거 광산에서 일하던 케추아와 아이마라 원주민들이 광산업이 쇠퇴하면서 대부분 차파레(Chapare)주로 이주하여 코카재배업자로 변신했다. 1980년대 중반 코카근절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까지

볼리비아가 세계 코카일 생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코카는 볼리비아 농민의 주된 생산물이었다. 코카재배로 인한 소득이 약 5억불 정도였으니 GDP규모가 100억불도 되지 않는 볼리비아에서 코카재배는 그야말로 농민의 생명줄과도 같았다. 그러다 보니 1997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의 압력에 따라 실시된 코카 재배 근절 정책으로 인한 손실은 GDP의 약 8%에 달했다.(Mayorga 2005, 171)

게다가 코카는 원주민들에게 단순히 수익성 있는 작물이라는 성격을 넘어 전통적인 소비 대상이자 제식 등에서 영적인 용도로도 쓰이는 문화적으로 특별한 의미의 농산물이었다. 따라서 코카재배업자들은 원주민의 문화적 권리로서 코카 생산을 방어하고자 했고, 이들의 저항은 자연히 원주민의 문화적 권리 투쟁이라는 성격을 띠게 된다.

코카재배업자들은 1980년대 이래로 미국의 DEA와 대사관이 주도하는 반 마약부대와 사실상의 저항도 전쟁을 벌여왔었다. 코카재배업자들이 주도하는 고속도로 점거와 시위를 반마약부대가 잔인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투쟁은 수차례 폭력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볼리비아의 코카 재배 근절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미제국주의를 비난했던 모랄레스가 1997년 국회에 진출한다. 하지만 그는 2001년 코카재배업자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반역죄로 몰려 국회에서 탄핵되는 사태를 맞이한다.

그러나 에보 모랄레스는 이를 계기로 단순히 코카재배업자의 리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게 된다. 그리고 2002년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구좌파, 영향력 있는 좌파 법률가 그룹, 현 농민과 노동자 연합의 지도자, 토지 없는 농민 운동(Movimiento Sin Tierra) 그리고 일부 저지대 원주민 운동 리더 등을 끌어들이어 보다 광범위한 정치 전선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새로운 정당인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 이하 MAS)이 백인 엘리트에 의해 억압받고 존엄을 상실한 모든 볼리비아의 민중과 원주민들을 대표한다고 선언했다.¹¹⁾

11) 사실 아이마라인들의 카타리스타 운동과 저지대 원주민 운동인 CIDOB이 명백한 중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 코카 생산업자들의 정체성은 다소 복잡한 성

코카 재배업자들이 볼리비아 정치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는 그들의 수적 비중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와 더불어 이들의 거주지역이 백인과 메스티소들의 주요 거주 지역인 저지대 산타크루스와 안데스의 수도 라파스 간을 잇는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두 도시는 볼리비아에서 산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들로서 두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는 사실상 볼리비아의 동맥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도로를 점거한다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투쟁방식이 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코카 자체가 미국의 대중남미 반 마약 전쟁의 주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투쟁이 국제적 안보 이슈로서 세계적 주목을 끌 수 있었던 것도 코카 재배업자 운동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라 할 수 있다.

한편 노련한 정치 활동가이자 한때 카타리스타 게릴라이기도 했던 카리스마 있는 아이마라 지도자인 펠리페 키스페는 분리 독립된 아이마라 권력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일부는 키스페의 마초적 리더십이 폭력적이고 진보적이 아니라고 비난하기도¹²⁾ 하지만 어쨌든 그는 강력한 문화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아이마라 원주민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한 정치 조직으로서 파차쿠티 원주민 운동(Movimiento Indígena Pachakuti, 이하 MIP)을 이끌고 있다.

아이마라인들이 CIDOB에 비해 보다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순전히 지리적 요인 때문이다. 아이마라인들의

격을 띤다. 코카 재배업자들이 메스티소, 케추아, 아이마라 등 다종족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의 종족적 정체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비록 언론이 흔히 이들을 “케추아”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들은 훨씬 복잡한 종족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지도자인 에보 모랄레스 또한 언론에서 “케추아”로 규정하기는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그를 아이마라로 규정하는 곳도 있다.(www.aymaranet.org) 실제 그는 케추아와 아이마라 이중 언어 지역인 오루로 주의 찰라파타 출신이다. 어쨌든 코카 재배업자들의 정치적 입장이 원주민 농민의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의 지도자인 에보 모랄레스가 그의 운동에 있어 원주민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운동을 원주민 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12) 키스페는 원주민 인권 운동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방향 중 하나인 집합적 토지 소유권 대신 개인적 토지 소유권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저지대 원주민 그룹의 반감을 샀다.

공동체는 주로 수도인 라파스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볼리비아의 메스티소와 백인(합쳐서 q'ara: “카라”로 불림) 엘리트들이 원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인종적 편견과 차별은 주로 이들 아이마라인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파스 주변의 아이마라 거주지역인 빈민촌 엘알토는 히스패닉적 성격의 도시 라파스에게 항상 위협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볼리비아 정치에 있어 지배 엘리트들이 아이마라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오히려 케추아인들에 대한 것보다 더 크다. “카라”들이 느끼는 이러한 불안감이 일찍이 엘리트와 아이마라 간에 정치적 타협을 가능하게 했고 그로 인해 아이마라의 정치적 영향력도 증대할 수 있었다. 결국 실제로는 라파스 주변 10개 구역 정도에 국한된 지역적 성격의 아이마라 원주민 운동이 볼리비아 국가 중앙정치에 있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이마라 지식인과 그들의 운동이 지역적으로 국가 권력의 심장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저지대 원주민 운동인 CIDOB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CIDOB 지도자의 상당수는 MIR당과 동맹을 주장했고 이들 중에 일부는 이 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다른 일부는 모랄레스와 좌파 법률가 그룹과 동맹함으로써 고지대와 저지대 원주민들 간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뽀스페로(Postero 2004, 205-206)에 따르면 동시에 저지대 원주민 그룹들은 이러한 동맹의 결과 고지대의 무토지 빈곤층이 저지대 원주민들이 보호하기 위해 투쟁해왔던 자신들의 토지에 침입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에 대해 항상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2년에 CIDOB은 원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정치적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헌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제헌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산타 크루스에서 라파스까지의 행진을 시작하였다. 비록 선거를 앞두고 원주민 그룹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러한 행진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고지대의 케추아와 아이마라농민들이 저지대 원주민들의 이러한 행동에 상징

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이 행진은 대중과 언론의 큰 관심을 끌어 모았다. 비록 이 행진은 원래 의도했던 제헌의회 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 원주민이 볼리비아 정치에 중요한 행위자로 다시 부상했음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다.

IV.3. 2002년 선거와 종족성의 정치

코카 생산업자들과 저지대 원주민 운동 CIDOB의 시위와 행진이 있던 뒤에 실시된 2002년 선거에서 원주민과 농민 운동은 중앙 정치의 장에서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코카 생산업자와 원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에보 모랄레스가 주도하는 MAS는 대선에서 20.92%를 득표함으로써 22.45%를 득표한 MNR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아이마라인 키스페가 주도하는 MIP도 6.1%를 득표함으로써 5위를 차지하였다.(Center on Democratic Performance, 2002a, <http://www.binghamton.edu>) 한편 이들 두 세력이 확보한 하원 의석은 MAS가 27석, MIP가 6석으로 총 130석 중 33석에 이르렀다.(Center on Democratic Performance, 2002b, <http://www.binghamton.edu>) 선거의 결과 2002년 개최된 국회에서 130석 중 33석에 원주민 대표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볼리비아인들에게는 새로움이었으며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는 방식에 있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반면 볼리비아의 전통적인 세 주요 정당 - MNR, MIR, ADN - 의 대선 득표율은 모두 합쳐 42.18%에 불과했고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85%에 그쳤다. 이에 비해 원주민과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두 그룹 - MAS 와 MIP -의 대선 득표율이 27.02%이고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11%였다는 사실은 이제 볼리비아에서 원주민 운동이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의미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때부터 볼리비아의 정치는 MNR과 MIR 중심의 전통 정당정치세력과 종족성에 기반을 둔 원주민 사회운동으로 양극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Mayorga 2005, 176)

물론 이러한 선거 결과가 기존 정당을 지지하는 표가 원주민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97년과 2002년 하원의원 선거결과를 비교해보면 기존 정당 중에 MNR과 MIR의 지지율은 각각 18.20%, 16.80%에서 22.46%, 16.32%로 조금 상승했거나 아니면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ADN의 지지율은 22.46%에서 3.40%로 하락했는데 이는 백인 거주 차코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도 우파 ADN에 대한 지지가 원주민운동에게로 옮겨갔다가보다는 앞선 ADN의 우고 반세르(Hugo Banzer)정부의 실정에 대한 지지 하락이 정치 신인인 백만장자 후보 만프레도 레이에스 비야(Manfred Reyes Villa)의 신공화세력(Nueva Fuerza Republicana, 이하 NFR)의 득표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새로이 조직된 NFR은 이 선거에서 20.91%를 득표했다.

그러면 처음 선거에 참여한 MAS와 MIP의 지지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들에 대한 지지는 기존의 두 포퓰리스트 정당 CONDEPA와 UCS에 대한 지지가 옮겨온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언급한 언론 재벌 카를로스 팔렌케가 이끄는 CONDEPA와 산타크루스를 기반으로 볼리비아에서 가장 큰 맥주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걸쳐 병원, 학교, 길 등을 지워주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누어 주면서 빈민과 원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던 막스 페르난데스(Max Fernández)의 UCS의 2002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지지율은 각각 16.11%, 17.16%였다. 그러나 2002년 선거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는 각각 0.37%, 5.51%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들 포퓰리스트들에 대한 지지가 주로 도시의 빈민층이나 원주민들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들에 대한 지지가 MAS와 MIP로 옮겨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원주민들이 주로 포퓰리스트들의 선거를 앞둔 선심성 캠페인이나 선거전략에 휘둘렸던 모습에서 벗어나 2002년 선거를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들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볼리비아에서 “종족성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IV.4. 원주민 운동의 정책 거부권

뿐만 아니라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3년 8월 원주민 운동은 MNR과 MIR의 연합 정부의 대통령인 산체스 데 로사다를 몰아내는 데도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다. 원주민 운동의 리더들인 모랄레스와 키스페가 라파스, 엘알토, 코차밤바 등에서 주도한 6주 간의 대대적 시위는 그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이 사태로 인해 이후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은 결국 사임하고 볼리비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축출은 물론 칠레를 통과하는 천연가스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때문이었지만 실질적 이유는 원주민이나 사회의 빈곤층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데에 대한 불만이 터진 것이다.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원주민들이었으며, 이들은 이제 지배적 백인 엘리트들에 대한 종속적 입장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면서 정책 결정과정에 당당히 참여할 권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 일은 원주민들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해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도로 차단과 같은 격렬한 시위 등의 방법을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원주민 운동이 이러한 힘을 가지게 된 데에는 다른 사회운동들과의 광범위한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원주민 운동은 이제 단순히 원주민 문제를 넘어 국가의 전반적인 정치경제문제들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운동의 주도권은 원주민들이 잡고 있었다.

관련하여 포스테로(Postero 2004, 207)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970년대의 원주민 운동이 원주민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종족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03년에 원주민 지도자들은 산체스 데 로사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서기 위해 원주민이 아닌 다른 성격의 민중 조직과도 전략적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언론이 원주민 반란이라고 부르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동맹은 MAS의 에보 모랄레스와 라파스 지역의 아이마라 농민 리더

인 펠리페 키스페라는 두 명의 원주민 지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시위대의 전방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압도적으로 원주민 - 특히 대부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한 엘알토 지역의 원주민 - 이 많았다. 시위대의 리더들은 안데스 전사들의 용맹함을 언급하는 등 그들의 주장을 밝히기 위해 종족적 수사와 상징물들을 즐겨 사용했다. 심지어 새 대통령과의 조약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펠리페 키스페는 과거 백인과 메스티조의 파세뇨스 세기의 인디언 반란과 보복으로 인한 공포를 상기시키면서 만약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거리가 피로 물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지배계층에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제 볼리비아는 원주민 운동이 강력히 거부하면 정부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원주민 운동은 단순히 과거의 문화적 인권을 추구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가 정책 전반에 있어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V. 결론

볼리비아의 원주민 운동이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는 시위를 통해 힘을 과시하는 수준이었다면, 90년대 중반부터는 기존 정당과의 동맹을 통해 권력에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인정이라는 소득을 얻었지만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부 하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는 그러한 동맹의 한계를 인식한 원주민 운동이 동맹의 틀을 깨고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원주민 운동은 선거의 장에서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차단 시위와 같은 사회 운동을 통해 하나의 정책 거부세력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는 양면 전략을 통해 명실상부 볼리비아 정치의 핵심으로 부각한다. 이렇게 원주민이 볼리비아 정치의 주류에 가입한 것은 1952

년 볼리비아 혁명이 지니는 의미보다 더 큰 것이다. 2005년 원주민 운동의 성격을 띤 코카 재배업자 운동의 리더인 에보 모랄레스가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의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부록>

- ADN : Acción Democrática Nacionalista, 민족주의 민주행동당
- CIDOB : Confederación Indígenas del Oriente, Chaco y Amazonía de Bolivia, 볼리비아 동부, 차코, 아마존 지역 원주민 동맹
- CONDEPA : Conciencia de Patria, 조국의 양심
- CSUTCB : Confederación Sindical Unica de Trabajadores Campesinos de Bolivia, 볼리비아 농업노동자 유일 노조동맹
- MAS : Movimiento Al Socialismo, 사회주의운동당
- MIP : Movimiento Inígena Pachakuti, 파차쿠티 원주민 운동
- MIR : Movimiento Izquierdista Revolucionario, 혁명좌파운동
- MNR : 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민족주의혁명운동당
- NFR : Nueva Fuerza Republicana, 신공화세력
- PMC : Pacto Militar Campesino, 군부와 농민의 협약
- SAE : Sub-secretaria de Asuntos Etnicos, 종족 문제를 위한 국
- UCS : Unión Cívica Solidaridad, 시민연대연합

Abstract

Antes de mediados de los 90, los movimientos de los indígenas en Bolivia se habían limitado a mostrar su influencia sólo a través de manifestaciones callejeras. En general su identidad se definía como “campesinos” aunque los aymaras luchaban para recuperar su identidad cultural con su movimiento Katarista. También los indígenas de la región amazona de Bolivia agregaron su fuerza organizando su propio

movimiento: CIDOB. A mediados de los 90, los movimientos indígenas se aliaron con MNR, lo cual les dio el reconocimiento del multiculturalismo de la sociedad boliviana. Sin embargo, a pesar del multiculturalismo la vida de los indígenas no se mejoró realmente. Desde el año 2000 los indígenas bolivianos se levantaron. Por consiguiente, el MAS de Evo Morales, líder de los cocaleros de Cochabamba y el MIP de Felipe Quispe, líder de los Aymaras de la región de La Paz, los cuales representan los intereses de los indígenas, tuvieron éxito en las elecciones de 2002 abriendo la nueva era de la política étnica. Y los movimientos indígenas tienen tanta influencia política como pueden realizar el derecho de veto a las políticas del gobierno. Así, actualmente en Bolivia no se puede hablar de la política sin considerar la influencia de los movimientos de los indígenas.

Key Words: Human Rights, Indigenous Peoples, Ethnic Politics, Bolivia, Evo Morales/ 인권, 원주민, 종족성의 정치,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논문투고일자: 2007. 01. 21

심사완료일자: 2007. 02. 05

게재확정일자: 2007. 02. 13

참고문헌

- 김기현(2005),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인권: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8, No. 3, pp. 85-119.
- Albó, Xavier(1991), “El retorno del indio”, *Revista andina*, Vol. 1, No. 2, 299-345.
- _____ (1994), “And from Kataristas to MNRistas? The surprising and bold alliance between Aymaras and neoliberales in Bolivia”, in Donna Lee Van Cott(ed.), *Indigenous people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NY: Inter-American Dialogue, pp. 55-81.
- Center on Democratic Performance(2002a), “Bolivia 2002 Presidential Election”, <http://www.binghamton.edu>
- Center on Democratic Performance(2002b), “Bolivia 2002 Legislative Election”, <http://www.binghamton.edu>
- Degregori, Carlos Iván(1998), “Movimientos étnicos, democracia y nación en Perú Bolivia”, in Claudia Dary(ed.), *La construcción de la nación y la representación ciudadana en México, Guatemala, Péru, Ecuador y Bolivia*, Guatemala: FLACSO, pp. 159-225.
- Eckstein, Susan(2001), “Epilogue. Where have all the movements gone?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at the new millenium”, in Susan Eckstein(ed.), *Power and popular protest.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51-406.
- Gustafson, Bret(2002), “Paradoxes of liberal indigenism: Indigenous movements, State processes, and intercultural reform in Bolivia”, in Maybury-Lewis, David(ed.), *The Politics of ethnicity: Indigenous peoples in Latin American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65-306.
- Jackson, Jean E., and Kay V. Warren(2002), *Indigenous movements*,

- Self-Representation and the State in Latin America*,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Mayorga, René Antonio(2005), “Bolivia's Democracy at the Crossroads”, in Frances Hagopian and Scott P. Mainwaring (ed.),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in Latin America*, Advances and Setback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49-178.
- Postero, Nancy Grey(2004), “Articulation and fragmentation. Indigenous politics in Bolivia”, in Nancy Grey Postero and Leon Zamosc(ed.), *The Struggle for indigenous rights in Latin America*, England: Sussex Academic Press, pp. 189-216.
- Remy, María Isabel(1994), “The indigenous popul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democracy in Peru”, in Donna Lee Van Cott(ed.), *Indigenous people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NY: Inter-American Dialogue, pp. 107-130.
- Rivera Cusicanqui, Silvia(1987), *Oppressed but not defeated, peasant struggles among the Aymara and Quechwa in Bolivia, 1900-1980*, Switzerland: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Rubin, Jeffrey(1998), “Ambiguity and contradiction in a radical popular movement”, in Sonia E. Alvarez, Evelina Dagnino, and Arturo Escobar(ed.), *Cultures of politics, Politics of cultures: Re-visioning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Boulder Colo.: Westview Press, pp. 141-164.
- Sieder, Rachel(2002), *Multiculturalism in Latin America: Indigenous rights, diversity and democracy*, Houndsmills, England: Palgrave Press.
- Van Cott, Donna Lee(2000), “Bolivia: The construction of a multiethnic democracy”, in Howard J. Wiarda and Harvey F. Kline(ed.), *Latin American politics and development*, 5th ed., Colorado: Westview Press, pp. 331-349.

Yashar, Deborah J.(1998), “Contesting citizenship: Indigenous movement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Comparative Politics*, Vol. 31, No. 1, October, pp. 23-42.

“A political awakening. Indigenous people in South America”, *The Economist*, Feb. 19th, 2004.